전력이 다 가설돼 있는데 쓰고 안 쓰고는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 19면에서 계속

은 없으니까 말입니다. 그걸 안심하고 믿어야 됩니다. 전력이 없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나 나나 전력이 없는 거는 전혀 아닙니다. 전력은 누구나가 다 똑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한 가지를 "요걸 맡기고 요렇게 해라. 그러면은 병이 낫는다." 그러면 그 병만 거기다가 놓는 겁니다. 여러분 밥 해 먹는 그 가스레인지에다가 뭐 하십니까? 뭐, 별거 별거 다 하시죠. 밥 한 가지만 하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벌써 가스에다가는 물도 끓일 수 있고 밥도 하고 뭐, 다 할 수 있는데, '물 끓이는 한 가지만 여기다 해라' 했어도 딴 것도 다 할 줄 알아야죠. 이거는 일일이 와서 묻는 겁니다. 목 아프게 말입니다, 응? 이거는 도무지, 방에 앉았으면 일일이 와서 물으니 그걸 일일이 어떻게 오는 대로 요건 요렇게 해라 그러죠. 또 어쩔 수 없어서 말입니다, "아, 이거 하랬으면 이것도 거기다 하지, 왜 그래?" 그러죠. 또 얼마 있다가 보면, 그 사람 일이 이렇게 돼서는 쩔쩔맨다고, 지금 은행에 부채가 뭐, 어쩌고 그러면 "이거 봐, 그것도 그 가스에다 끓여." 그럽니다. 하하하.

이 전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광대무변하고, 불성에서 다 나오는지 여러분은 모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들은 무슨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해 가지고 뭘 받는다나요? 이거는 잘못되는 이치예요. 각자 나한테 충만하단 얘깁니다, 충만해. 지금 별성들이 은하계처럼 돌아가고 있어요. 싱싱하게 돌아가고 있는 거를 자기 마음들이 싱싱하게 돌아가지 못하게 막아 놓는 거예요. 왜들 그러는지 난 모르겠어요. 그것이 바로 업보라는 건지 도대체 그게 뭡니까?

또 한 가지는, 가만히 여러분 오시는 거 보면 속이 타서 불이 일어납니다, 하하하. 야! 한 집에 자식이나 하나 아프면 좋은데, 자식은 아프지 어른은 일 안 되지, 딸들은 나가서 안 들어오거나 늦게 들어오지, 야, 술이나 마시고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말이야. 온통 밤새도록 노름하다가 늦게 들어오지, 데모나 일으키지, 말썽부리지. 또 자식을 길러서 시집이라고 보내려고 하면 잘못 가 가지곤 싸움을 하고 한 대 얻어걸리고 이러곤 들어오지. 이러니 이게 하루나 편할 일이 있어야지, 도대체 이거는. 지금 애들이 예전 애들과 같습니까?

그런데 부모들이 지금 걔네들 세대와 레벨이 맞아야 됩니다. 이건 꼭 맞아야 됩니다. 시대가 바뀌는 대로 우리들 방편도 바뀌어야 되는 이치처럼. 그리고 말로 해서 아니 됩니다. 말로 하면 이건 점점 더 빗나가고, 욕을 해서도 아니 됩니다. 때려서도 아니 돼. 단 있다면, 미운 아기 떡 한 번 더 주랬다고 말을 곱상하게 해 줍니다. 그리고 모든 거를 안에다가 맡겨 놓습니다. 그러면 그쪽으로다가 에너지가 통합니다. 내 전화통을 돌리면은 그쪽의 벨이 울리듯이. 그러면 영락없이 착해집니다. 그건 뭐, 장담합니다.

그런데 부부지간이든 자식지간이든 온통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 화목이 올 수가 있어야지. 거죽으로도 화목이 오지 못하면서 속으로도 그냥 자꾸 업보만 짓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누가 갖다 준 겁니까? 여러분의 전자로부터 좇아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 업보가 전자로부터 좇아 나오는 건데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그런데 가슴에서 치올라 오는 거는…, 여러분 지옥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지고 지금 다닙니다. 카세트 하나에 감긴 거를 지금 짊어지고 다닙니다. 지금도 솔솔 풀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속이 상해서 막 펄펄 뛸 때는 보살의 행으로, 보살은 지옥에 들어가도 그 펄펄 끓는 기름 도가니를 녹여 버린다고 그랬습니다.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칼산지옥이나 불탄지옥이나 그냥 다 없어진다고 그랬거든요. 오간지옥이 무너지고 말입니다.

왜 그런 소리를 했나? 여러분이 주인공에다 모든 것을 맡겨 놓는다면 그냥 딱 가라앉습니다. 전자로부터 나오는 거니까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거든. 자기가 해 놓고 자기가 받는 거니까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냥 그 자리에다가 되놔 버리는 겁니다. 그럭하면 지옥도 무너지죠, 자기는 보살이 되죠. 그러나 지옥이 한두 가집니까? 아수라지옥도 있죠. 술 먹고 들어와서 막 주정을 부리는데 그런 것도 술을 마시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기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마음에서 그렇게 분기가 일어나고 조금만 보면 그냥 속상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나오는 대로 그냥 발산이 되는 거죠.

그 발산이 되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길이는 팔십 리요, 넓이는 오십 리이니라. 그렇게 큰 솥에 펄펄 끓는 기름 속에 들어가서 지옥고를 받으니…." 이럭하거든요. 이렇게 얘기가 돼 돌아갑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팔십 리라는 것은 유, 무를 말합니다. 저승, 즉 말하자면 내가 나기 이전으로부터 쫓아 나온 사무, 쫓아 나온 사유. 이렇게 해서 사, 사, 팔, 팔십 리. 그래 십이 들어가면 이게 동일하게 묶어집니다. 같이 돌아갑니다.

그러니 같이 돌아가서 우리한테 그렇게 고가 자꾸자꾸 다가오는 거를 거기다가 놓게 되면 고가 다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고가 있다고 팔자 운명을 타령하지 말고 어떠한 지경에 이르렀다, 집안에 어떠한 자식들이 그렇다, 부부가 서로 맞지 않는다 하는 문제가 있더라도 모든 것은 거기다 맡겨 놓고 생각을 깊이깊이 다잡고 '이거는 전자에서부터 좇아 나온 지옥이다. 이거를 무너뜨려야지. 이거는 내 주인공밖에는 없다.' 하곤 거기다가 놨을 때에 지옥고가 다 무너집니다. 해 보십시오, 거짓말인가 정말인가.

그거는 그렇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 가지 일체를 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세상 살아나가는 데에 무시할 수 없는 국내의 문제들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기업이든지 소기업이든지 또는 경제면에서라든가 또는 남북이 갈려 있는 거라든가 또는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가지고 해야만 앞으로 자라나는 자식들한테 그 보배를 맡겨 줄 수 있고, 길을 인도해 줄 수 있고, 뿌리를 싱싱하게 잘 해 줘서 역사를 좋게 가져올 수 있게끔 만들어 줄 수 있을까 하는 것도 여러분한테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이것은 지금 세상에 앉아서 할 수 있는 무역도 될 수 있고, 앉아서 호국불교도 할 수 있고, 앉아서 마음의 조절도 할 수 있고, 앉아서 모든 스위치를 올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스위치를 올리지 마시고, 중두난발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오직 여러분이 잘되고 못되는 거 사량으로 해서는 아니 되니까 주인공에 맡겨서, 주인공이 적절하게 하게끔 맡겨 놓으시란 얘깁니다. 그래야 틀림없거든, 그게. 어느 것이든, 경제, 국방, 통일되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을 우리가 마음부터 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온 천하에, 저 하늘의 한울, '한울' 하는 거는 전체 통신이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한마음' 하는 것도 마음입니다마는 '하늘' 하는 것은 지혜로도 돌아갑니다. '한울' 하는 거는, 즉 말하자면 통신을 말하고 '하나님' 하는 거는 내가 있기 때문에 모두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마음 자체로서 세계, 우주의 섭리와 항상 하나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내가 항상 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게 들어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눈 하나 깜짝거리지 않습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한 생각 그냥 거기다가 맡겨서 이렇게…. 그러나 맡기기만 하면 되느냐. 무조건 스위치만 눌러도 안 돼. 스위치 올려놓고서도 뭐 갖다 놓고 하질 않으면 그거는 빈 가스만 돌아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엇이 잘못돼서 돌아가니까 거기에서 다 적절히, 당신은 할 거라고 믿고 놨을 때 나라도 적절히 돌아가. 나라뿐만 아니라 우주의 근본과 더불어 섭리가 같이 돌아가거든요. 다른 혹성들도 다 같이 돌아갑니다.

우리가 단면적으로 요 부분만 생각하는데, 세계가 있다면 우주가 있어요. 대천세계가 있고 소천세계가 있고 중천세계가 있어요. 전체가 돌아갑니다. 전체가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한생각 내는 게 그게 요지라 이겁니다. 보배라 이겁니다. 여러분이 깨닫고 못 깨닫고 간에 우선적으로는 여러분이 시급한 거를 막을 수 있다 이 소립니다. 아무리 강을 막아서 뭐를 한다 하더라도 그건 새 발의 피입니다. 그거는 어디로 빼든지 전체, 보이지 않는 데서 마음이 도운다면요, 그까짓 게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 위력을, 도도하고 당당한 위력이 여러분한테 있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합니다. 놓고 빌고, 나한테 그냥 묻고 이러는 이게 불법이 아니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이 그렇게 당당히 가지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현실에서 적응하게 만들면서, 지금 웃고 묵묵히 가면서도 주장자 하나를 탁 들면 우주를 받쳐 들 수 있는 그러한 문제가 여여하게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꿈에도 착을 두지 마라. 생시에 우리가 모든 거에도 착을 두지 않으면서도 여여하게 그냥 해 나가라. 한 번 꿈을 꿔도 생각을 하고서 그냥 거기다 놔 버리면 그대로 생각하기에 달린 거야. 나쁘다면 나빠질 거고 좋다면 좋아지는데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그냥 놔라 이거야, 거기서 다 해결하게. 자기가 사량으로 나빠지면 얼마나 나빠지고 좋아지면 얼마나 좋아지겠습니까? 그러니 거기다 놔라 이거야, 거기서 다 해결하게.

난 길에 가다가 어떤 때는 이런 걸 많이 봅니다. 금귀고리에 금반지에 그냥 참 삐까삐까하게 하고 갑니다. '저거 며칠이나 또 갈까?' 이럽니다. 어려우면 얼마나 오래 어렵고 부자면 얼마나 오래 부자로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 다 놔라 이겁니다. 이것이 제일 빠르고 아주 편안한 일이야. 두 가지를 다 주인공에 놓되 착을 두지 말고, 그대로 중심으로서 사리를 잘 세워서 이것을 쓸 일이라면 쓰고 안 쓸 일이라면 안 쓰고, 이렇게 주장심은 언제나 가지고서…. 인간은 그렇게 생각하고 살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인간이기 때문에 부처님 될 수 있는 바로 금인데, 금에 빛만 낸다면 부처고 빛을 내지 못하면 그건 중생입니다, 똑같은 금이지만.

>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스위치를 올리면 안 됩니다.
> 경제, 국방, 남북통일 어느 것이든
> 모든 것을 우리가 마음부터 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위 법문은 대행 선사 법문집 《허공을 걷는 길》 중 1987년 4월 19일 정기법회 법문을 정리한 것입니다.



대행선사 법훈록 그냥 목조건이야!

" 업이 있다 없다 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에, 오늘 그걸 알아내면
과거부터 끌고 오던 그 업은 순식간에
봄이 오면 눈 녹듯이 다 사라져버리니까 말입니다.
과거가 문제가 아니라 오늘이 문제입니다
내일도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지금, 오늘이 문제입니다."

-본문 중에서-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르치신
대행스님 법음의 정수!

"실생활에서 자기 마음 관觀하는 것을 일러줘서
자기 나무가 자기 뿌리를 믿고 찾을 줄만 안다면
그것은 보배를 찾아주는 것이나 같습니다."

규격 신국판 (154*200) 페이지 232쪽 출판사 (재)한마음선원 출판부 정가 15,000원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